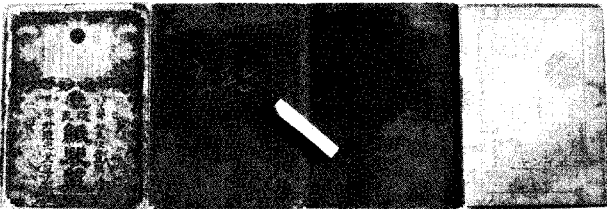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 그러나... 엄마! 공부하기 싫어



흑판, 석필(1900년대) 공책 대용으로 사용되었다.

자식에게 교육투자 하는 만큼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설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아가 꿈을 거릴 때부터 교육투자에 돌입한다.

태교교육으로 시작되는 이 투자는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사회 시스템으로 교육은 하나의 큰 사업이

되었다. 학교를 위시하여, 학원, 학습지회사 등 교육으로 먹고 사는 이는 엄청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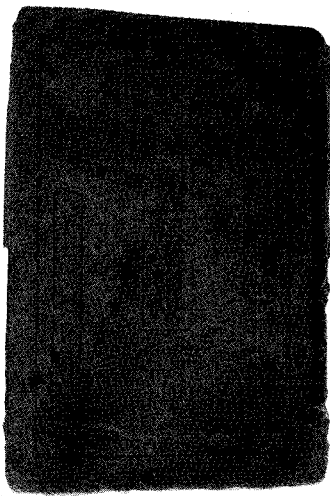
그런데 최근 교육투자의 빨간 불이 켜졌다.

우리 세대에서 제일 확실한 부가가치를 낳아주었던 서울대학교가 최근 낮아지는 졸업생 취업으로 교내에서 “취업 박람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사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아직 미래가 불확실한 내 자녀에게 교육에 대한 열망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으로 내 자녀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빼앗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때다.

1894년 “노비제도철폐”, “과거제도 폐지”, “단발령” 등으로 하는 “갑오개혁”이 실시되면서 조선정부는 근대교육(서구과학교육)을 받아 들이면서 “학부(문교부)”를 만들고 이듬해 “한성사범학교관계”가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최초의 초등교육기관인 “관립한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가 생겨났다.

이후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본 관제 교육이 이 땅에 실행되었고 1920년대 들어서면서 조선인 사회에도 고등교육(중학교 이상)인구가 급격히 증가 하는데 그 당시의 교육동네 모습이 이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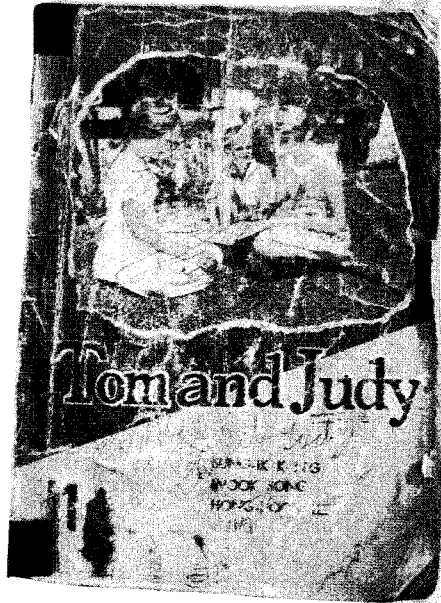


공책(1920년대)

“모자표는 엿장사에게 전당을 잡혔다가 찾아 붙였는지 모두 오그랑 바가지가 되어 어느 학교 학생인지 분간할 수 없고, 일본말만 배우느라고 입이 부었는지 하학종만 치면 변소에 가서 담배로 입 뜨기가 일쑤요, 3,4인만 모여 앉으면 선생의 비평과 여학생 비평으로 일을 삼고 점심시간이면 수십명 씩 때를 지어 호떡집으로 간다.

보성고등학생은 견지동 영해루 앞집으로, 중동학생은 수송동 김규진군 집 앞집으로, 휘문고 학생은 관현 모 양복집 옆집 또는 계동 위생소 앞집으로, 중앙고학생은 동교정문 밖 과자점으로 간다. 경신도 그렇고 배재, 양정 어느 학교 할 것 없이 다 그렇다.

-1925년 “개벽”에서-



1967년 영어책필자가 직접 사용한 것

60년 후반, 70년대 초반 사이에 청소년기를 보낸 필자는 교회활동, 교외 씨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도 씨클회지를 만들면서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 “공트” 몇 편을 실어 넣은 경험이었고, 심심찮게 전시기획을 맡은 것도 조직사회의 생리를 먼저 터득한 것에 기인한다.

필자는 나의 청소년기의 경험으로 내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 결과 큰 애는 반에게 중간정도고, 작은 애는 끝에서 3,4번째 한다.

그러나 큰 애는 뉴에이지 음악연주, 작곡을... 작은 놈은 영화특수분장을 하고 싶어한다.

그래!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잘해라!



잉크, 펜대(필자가 직접 사용한 것).